



협회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협회**의 위상정립 및 기능 확대, 회원사 확충, ESCO시장 발전을 위한 제반 건의활동 등 할 일은 많은데 주변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행히 최석곤 전임회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님들이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한번 해보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니 든든하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뛰어볼 생각이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제3대 ESCO협회장으로 선출된 유제인 EnE시스템 대표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유 회장은 설립 5년째를 맞고 있는 ESCO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의 일단을 내보였다.

현재 ESCO로 등록된 업체수는 약 160여개사. 그러나 실제 업체 수는 50여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 회장은 “활동중인 ESCO 업체의 50% 정도가 협회에 가입했다”며 “협회가 업계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회원 확대와 협회의 위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의 기능 강화와 회원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상호 보완 관계로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과제이므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뛰겠다는 각오인 것.

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 회장이 취한 조치중 하나는 임원사의 대폭적인 확대다. 에너지솔루션즈, 성림산업개발, 삼환이엔테크, 한미설비, 삼성에버랜드가 새로 부회장사가 됐다. 협회 임원진이 사안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업무 추진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다. 협회 사무국 조직도 업무 확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ESCO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 회장은 ESCO들의 기술과 시장의 신뢰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가동으로 10년 내에 폭발적인 에너지절약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느 ESCO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는 결국 누가 10년 후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확대에 따라 민간자금이 도입되면서 ESCO들은 이제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의 요구 또한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ESCO들은 기술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유 회장의 생각이다.

올해 ESCO 예산 규모는 대략 1,800억원쯤 될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ESCO 자금과 VA, 일반절약시설자금 등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른 분야에서 자금을 소진 시키면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ESCO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가동으로 10년 내에 폭발적인 에너지절약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느 ESCO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는 결국 누가 10년 후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유 회장은 올해 결과를 본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CO 자금을 구분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금의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도에 협회의 건의로 공단에서 민간자금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 ESCO펀드와 같은 방안이 도출될 수만 있다면 자금의 조기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SCO 업계의 숙원이던 부채비율 증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 표준화(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ESCO들이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정부가 표준화(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열병합사업의 에너지절약성이나 시공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의도라면 표준화(안)이 원래의 목적대로 소형열병합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유제인 회장은 뉴멕시코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KIST 부설 태양에너지연구소를 거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97년 국립연구원 창업1호로 현재의 (주)EnE시스템을 창업, 냉동공조 전문업체로 성장시켜 코스닥에 등록하기에 이르렀다.